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요즘 부쩍 자주 어린 시절이 꿈에 비친다. 내가 나이 든 탓일까, 혹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 탓일까. 이런 꿈을 자주 꾸는 까닭을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꿈은 아무 의미 맥락도 없이 뒤죽박죽이다. 꿈에서 깨어나면 이미 새벽이 와 있다. 내륙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불행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다. 나는 아무도 없는 텅 빈 시골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땅따먹기나 하며 권태를 견뎠다. 나는 농업 기반으로 살림을 꾸리는 내륙인의 농담과 수수께끼, 그들만의 습속과 도덕관념을 체화하며 성장한다.

바다 근처에서 살았다라면 좋았을 거라고 꿈을 품었지만 나는 내륙에서 나고 자랐다.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실존의 불가피한 조건이었다. 질풍노도였던 사춘기에는 바다를 동경했다. 바다, 나로부터 멀리 있는 바다는 미지의 그 무엇이고, 결핍의 대상이었다. 바다를 실물로 처음 영접한 건 17세때다. 그 여름 태풍이 몰아치던 동해안의 포구인 죽변항 앞 바다를 보았다. 방파제에서 본 바

여름의 복판에서 바다를 노래하다

다는 집체만한 파도로 세상을 뒤집을 듯한 태세로 포효하며 사납게 일렁거렸다. 그것은 무서운 바다였다.

태풍이 지나간 뒤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며 놀랐다. 나는 일망무제의 고요를 품고 있는 바다의 표면에 몸서리를 쳤다. 저 바다, 저 무서운 바다, 저 변화무쌍한 바다! 배들을 난파시키고, 술한 항해자들을 집어 삼키고 도 어린애처럼 순진한 얼굴로 떠 있는 바다! 바다는 잠 잡히거나 사납게 일렁이지만 약탈자가 아니다. 바다는 약하지도 선하지도 않다. 바다는 스스로 그러함으로 인류에게 교역과 소통의 길을 열어주며 많은 기회를 베풀었다. 그 바다를 억박지르고 도발한 것은 늘 탐욕스런 인간들이었다.

무엇보다도 바다는 상상력의 보고다. 바다는 모든 좋은 걸 무상으로 주었다. 나는 바다에서 분노와 열정을, 좌초의 쓰라림과 희생의 기쁨을, 우정과 사랑을 배웠다. 내륙인으로 성장했지만 나는 바다에서 인생의 덕목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인생의 중요한 계기 때마다 나는 바다에서 숙고하고 결단하는 지혜를 얻었다. 그리고 바다에 관한 많은 시를 써냈다. 바다는 내게 삶 자체다. 우리는 저마다 실존의 바다에 닻을 내린 채로 삶을 꾸린다. 바다에서의 나날은 예측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바다가 변화무쌍한 탓이다.

허만 펠빌의 ‘모비 딕’은 거대한 흰 고래를 쫓는 에이허브라는 사내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바다에 관한 매혹적인 서사시다. ‘물줄기다! 고래가 물을 뿜고 있다!’ 는

달인 산처럼 하얀 혹이다!’ . 분노에 눈이 먼 에이허브는 일곱 곳의 바다를 누비며 흰 고래를 쫓는데, 흰 고래는 바다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저마다의 바다에서 하얀 고래를 쫓는다. 하얀 고래는 우리 꿈과 사람이고, 우리가 그토록 열망한 성공이자 명망이며, 삶의 보람과 고귀함의 집약체일 테다. 어쩌면 그건 우리를 유혹한 신기루였는지도 모른다.

에이허브 선장이 쫓던 흰 고래는 공극의 추구이자 의미의 표상이다. 살아보니, 흰 고래가 없었다면 에이허브의 삶은 무의미로 전락한다. 살아보니, 사람의 가슴마다 흰 고래가 살아 있다. 그것은 일종의 성배다. 그 성배를 찾으려고 우리는 평생을 실존의 바다에서 헤맨다. 나는 무슨 흰 고래를 쫓았던가? 살아보니, 알겠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길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흰 고래는 인생의 모험 그 자체인 것을!

평생 내륙인이었지만 스무 살 때 ‘바다사냥’이란 장시를 써서 내놓은 자로 감히 바다의 발명자라는 자부심을 품었다. 휘트먼에게 풀잎이 있고 보들레르에게 파리가 있었다면 나에겐 바다가 있었다. 지금 바다는 플라스틱 쓰레기 등으로 오염되고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인류가 일으킨 재앙의 피해자들은 고스란히 바다 생물들의 몫이다. 영원을 품은 저 바다, 못 생명의 태초를 품은 저 바다. 늘 새롭게 변화하며 숨 쉬는 저 바다가 살아야만 인간도 살 수 있다. 나는 폴 발레리처럼 노래한다, 저기 바다가 있다, 살아봐야겠다!

종교칼럼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짧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첫날, 새벽 4시, 도량석 묵탁소리가 나야 할 시간인데 조용하다. 도량석을 맡은 스님이 낮잠을 잔게다. 5분쯤 지나니 부라부라 문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곧 묵탁소리가 난다. 4시 10분이 되자 도량석 묵탁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금고 소리가 어둔 새벽을 날카롭게 찢는다. 금고 소리에 짜증이 한가득이다. 그러자 공시렁거릿듯 도량석 소리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다.

절집의 새벽은 도량석 묵탁 소리로 시작한다. 도량석이 새벽을 깨우고 나면, 대웅전의 금고를 올리는 종성이 이어지고, 종성을 받아서 대종이 울린다. 도량석-종성-대종으로 흐름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아마도 도량석을 하던 스님도 은근 짜증났을 듯 싶다. 나라면 ‘아니! 그러다고 종성이 막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 라고 속으로 투덜거렸을 법하다.

도량석 시각을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송광사처럼 수행을 목적으로 많은 스님들이 생활하는 대중 처소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재가 신자들의 신행생활이 주를 이루는 말사에서는 아무래도 엄격하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대개 스님들이 큰

고래와 함께 춤을

절에서 처음 중노릇을 익히다 보니 도량석은 꼭 지켜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뇌리에 박혀 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도 도량석 묵탁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우선 짜증부터 난다.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오던 와중에 짜증 섞인 금고 소리가 귀전을 때릴 것이다. 순간 짜증 낫던 마음이 피식하고 웃는다. ‘나만 짜증 난 게 아니구나. 나도?’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피식하고 웃고 나니 그 웃음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그것은 괜한 짜증이 불리일으킨 겸연쩍음의 웃음이었다. 피식 하고 웃는 순간, 내 마음을 들여다 보고 만 것이다.

일상은 나를 포함한 여러 인연들이 함께 모여 펼쳐지는 장이다. 당연히 일상을 영위하는 모든 것에 대한 나름의 생각과 기준이 일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마련이다. 어떻게든 잠시라도 일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기준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충돌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충돌은 각자의 생각들을 자양분 삼아, 일상을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게 한다. 일상을 잠시 벗어날 때는 이런 것들도 일상의 자리에 두고 나오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도드라질 정도로 눈에 확 들어온다.

짧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새벽에 일어난 일이다. 송광사였다면 엄중한 사건일 법한 일이지만 말사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짜증거리 정도이다. 이런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구성원과 조직의 일체화 정도에 좌우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온 사회는 적폐청산의 열기로 달아올랐다. 적폐를 청산하자는 외침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일년 정도 지난 뒤 외침

은 조용해졌고 세상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실용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에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하며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公僕)임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일개 부군수가 대통령의 면전에서 꾹 찌듯게 안일한 보고를 이어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엄격한 상벌체계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거대한 관료체계를 사명감에 불타는 조직으로 바꾸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짐작컨데 우리같은 말사의 규범의식을 송광사 수준으로 혁신하는 정도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공직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과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변화해야 하는 문제다.

어떻게 하면 고래가 춤추게 할 수 있을까? 청찬은 고래를 잠시 으쓱하게 할 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물론 억지로 강제하거나 각종 사탕발림과 거짓 속임으로 잠깐 마음을 흠칠 수는 있지만, 스스로 바꾸도록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잠시 일상을 나갔다 오니, 일상 속에 있을 때 보기 힘들었던 것이 눈에 들어온다. 몸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휴가 중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휴가 복귀 첫날, 일상이 또렷하게 느껴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마음이 자유로워야 내 마음을 비롯한 온갖 마음들 속에서 헤매거나 좌초하지 않을 것이다. 호시우보(虎視牛步)라 하였다. 나는 물론이고 이재명 정부에도 꼭 필요한 말이다.

전남에서 시작하는 K-에너지 혁명

전남 차세대 전력망 시범사업은 전남 지역의 발전을 넘어 국가 전력망을 혁신하는 출발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략산업(제2의 반도체)으로 차세대 전력망 산업을 이끄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차세대 전력망은 동네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같은 동네에서 소비할 수 있는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구축이 핵심 내용이다. 작은 전력망이지만 재생에너지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을 AI 통합시스템으로 제어하여 재생에너지의 생산·저장·소비·거래를 최적화할 수 있는 똑똑한 전력망이다.

전남형 마이크로그리드 시범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수급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원전 등 기저전원과 재생에너지 간의 에너지믹스가 용이해져 기존 전력망 내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전력망 운용이 가능해진다.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 전남 시범사업으로 예고한 2000억원의 투자가 전남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즐거운 상상이다.

한전은 오는 2038년까지 약 72조원을 투입해 송변전 설비를 구축하는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을 지난 5월 발표했다. 장기리 송전망 건설 비용을 최소화하고 정부가 마이크로그리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면 전력계통 패러다임 변화와 혁신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또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력망이 전국적으로 확

성화되고, 더 나아가 K-마이크로그리드 모델이 세계적 표준이 되어 수출 산업화로 이어진다면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능하기도 어렵다.

이제부터 시작이고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전남도가 차세대 전력망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이를 핵심 인프라로 활용해 RE100 산업단지를 진정한 지역 성장축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각고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전남도는 정부가 발표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에 적극 참여해 산단, 스마트팜, 캠퍼스, 공항 등에 적용할 구체적인 맞춤형 사업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차세대 전력망 조성 및 산업육성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인근 산학연의 공동 연구개발, 기술창업 협력·성장 플랫폼으로 ‘K-GRID 인재·창업 밸리’를 정부와 협력해 총괄히 구축하고 차세대 전력망 산업 생태계가 전남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내 기업, 스타트업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햇빛바람 연금·배당으로 도민에게 개발이익이 최대한 환원될 수 있도록 공공개발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제도와 하고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 내는 것도 큰 숙제이다.

전남이 더 이상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 보내기만 하는 지역이 아니라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RE100 산업단지 기반으로 첨단산업이 모여들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우뚝 서는 그날이 머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투포트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여수광양항은 한때 부산항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만으로 여겨졌다. 참여정부의 이른바 투포트(two port) 정책에 따라 전략 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현재는 유명무실하게 됐다.

선박수와 물동량 등 잡되는 항만에 더 많이 지원하는 ‘트리거물’을 적용한 탓에 여수광양항의 침체가 시작됐다. 2011년부터 10년간 정부가 지원한 예산을 보면 부산항은 1조3842억원으로 여수광양항(2000억원)에 비해 7배 가량 많았다. 여수광양항의 지원 예산은 삼천포항(2133억원) 보다 못해 투포트 정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다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위축으로 이들 품목을 주로 다루는 여수광양항의 침체는 가속화 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부산항의 물동량이 7.1% 증가하는 사이 여수광양항은 오히려 1.3% 줄어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북극항로 개척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항

로가 열리면서 기존 유럽 항로에 비해 운항거리와 일수를 줄일 수 있어 각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선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가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 충분한 명분과 경쟁력이 있다.

명분 측면에선 부산항과 함께 양대 항만으로 육성한다는 투포트 정책을 다시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 경쟁력 측면에서도 북극항로의 선적 품목 대부분이 원유와 벌크화물 등 비컨테이너선이라는 점에서 비컨테이너선 최대 항만인 여수광양항이 컨테이너선 중심의 부산항보다 적합하다.

최근 정부가 대미 관세협상을 통해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북극항로가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광양에는 동북아 LNG 허브를 목표로 LNG터미널이 구축된다. 정부는 투포트 정책을 되살리고 북극항로 특성에 맞는 물동량을 감안해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호남발전특위 지역 현안사업 실현 기회로

정청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과정에서 호남의 한 자치단체장한테 들은 말을 가슴에 새겼다. “호남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들 하는데 국가가 호남의 경제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줬나”라는 말이다. 이 말을 들은 정 대표는 민주화에 대한 호남인들의 헌신과 봉사, 희생에 보답해야 한다는 다짐과 함께 티 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 당 대표 취임 직후 첫 일정으로 나주 수혜현장을 찾은 데 이어 6일에는 당내에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명직 최고위원에 서상석(무안·신안·영암) 의원을 지명했다. 오늘은 신임 지도부와 함께 무안에 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광주로 이동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고 한다.

정 대표의 호남 행기기는 대선 경선 과

정에서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장을 맡아 한 달 동안 호남을 누빌때 예견됐지만 곧바로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는 많지 않았다. 눈치 보지 않는 특유의 직설화법은 알지만 ‘티 나게’ 호남을 챙기겠다는 말이 부담스러워 설마 행동으로 옮길까라는 의구심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약속을 전광석화처럼 지키고 있다. 특정 대를 너무 챙길 경우 부작용이 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민주당의 호남발전특위를 호남지역 현안사업 실현을 위해 최대한 활용해야 할 때다.

후보 시절 정 대표 스스로 호남발전특위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와 전남 공공의 대 설립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도 있지만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역 정치권은 호남발전특위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현안사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無等鼓

아침 알람 소리에 깨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신 후 아이 등교를 도운 다음 익숙한 길을 따라 출근하기.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집안일을 마무리한 뒤 잠자리에 들기. 일상의 반복. 매일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하루. 우리는 이것을 ‘루틴(routine)’이라고 부른다. 스포츠 선수가 최상의 집중력과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같은 동작을 반복하거나 예술가가 무대에 오르기 전 마음을 다잡기 위해 일정한 자기만의 의식을 치르는 것도 일종의 루틴에 해

당된다.

단순히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의미를 넘어 루틴은 우리 삶의 구조이면서 무너졌을 때 비로소 존재감을 드러내는 틀이기도 하다. 때로는 답답하고 지루하기도 한 그 반복들이 어쩌면 내 삶을 붙잡고 있는 끈이 아니었을까. 그 끈을 잠시 놓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예기치 못한 사건, 큰 변화, 혹은 이별. 루틴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예상치 못한 일상의 변화에 기존의 루틴이 멈추자 하루가 낯설게 느껴진다. 몸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듯 하다. 바쁜 업무에

안정감을 느낀다.

삶의 리듬이 어긋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로 인해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루틴을 다시 완벽하게 회복할 필요는 없다.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잡기. 익숙한 루틴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금의 나에게 맞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가기. 그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닌 사소한 반복에서 시작된다. 이전과 똑같은 필요는 없다. 다만 나를 위한 루틴이면 된다. 다시 나를 살게 해주는 리듬. 그 리듬을 따라 루틴을 천천히 다시 만들어가보자.

/이보람 예방부 부장 boram@

기 고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

지난 7월 31일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다, 전남에서 시작하는 에너지 분권’을 주제로 국회 포럼을 마치고마자 휴대폰이 요란했다. 수고했다는 인사 대신, 쏟아진 질문은 하나였다. ‘전남 차세대 전력망이 대체 뭐고, 이걸 하면 뭐가 좋아지나’는 것이었다. 정부가 이날 전남을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로 선포하면서 내년도 2000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성장축을 마련한다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다져왔고 그 중심이 스디어 빛을 발하고 있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정부 브리핑 영상을 찾아봤다.

기대감으로 영상을 마추한 끝에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온 몸으로 전해졌다.

차세대 전력망(단기), RE100 산업단지(중기), 에너지고속도로(장기)로 이어지는 국가 에너지 대전환 및 미래 에너지 산업 선도국가로 향하는 최전선에 전남이 서 있었다.

전남이 제대로 해내야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청사진이 완성되는 것이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48	여 론 매 체 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제 2 사 회 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